

<2018년 3월 25일 주일말씀>

내게 배워라. 쉽게 하리라

본 문 요한계시록 22장 13절, 18장 6절
로마서 2장 9-10절

할렐루야!

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, 성자의 평강과, 성령님의 뜨거운 사랑과,
말씀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.

◎ 오늘은 <섭리사의 현 상황>과

<세상의 많은 일 중 지금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한 가지>를
생중계 하며 말씀해 주겠습니다.

주제는 ‘내게 배워라. 쉽게 하리라.’ 입니다.

<말씀 시작>

◆ 주가 말씀합니다.

“<육>끼리 가르치고 배우면 ‘육의 차원’에 해당되게 배우고,
<주>께 배우면 ‘주님 차원’에 해당되는 것을 배우게 되나니,
<배움>과 <차원>대로 행하게 되고 변화되느니라.”

* 잠시 쉰다.

- ◆ 그동안 <생각>은 ‘주’께 두었으나,
<실제로 행할 때>는
 - ‘자기 생각’이나
 - ‘자기가 중심한 사람의 가르침’대로 하였기에
주의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.

- ◆ <주의 말씀>을 확실히 듣고 <주와 함께> 실행해야
100% 주의 생각대로 한 것이 됩니다.

고로 <그 말씀>을 확실히 알고 행하며,
<주의 몸>이 되어 행해야 됩니다!

그러지 않으면

- ‘자기 생각’이나
- ‘자기를 가르친 자의 몸’이 되어 행할 뿐입니다.

- ◆ <주가 하는 말씀>을 듣고,
<그 의미>를 확실히 깨닫고 생각하고 행해야 됩니다.

10년, 100년을 행한다 해도

<말씀의 근본 뜻>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.

고로 <자기>도, <자기와 함께 하는 자>도 온전히 알게 해야 됩니다.

- ◆ 낙심하지 말고,
<선>을 행하고 <주의 말씀>을 좇아 행하기 바랍니다.

그러면 후회가 없습니다!

때가 되면, <주의 말씀>을 이루게 됩니다.

- ◆ <그 날에 예비된 하늘의 면류관>을 흠 없이 쓰기 위해
매일 <주의 말씀>을 따라 <주와 함께> 행해야 됩니다.

완전히 행하며 예비해 놓고, ‘그 날’을 기다려야 됩니다.

어떤 자는 기다리기만 하고 예비하지 않고 맞으니,
<영광의 날>을 맞았어도 보람 없이 맞았습니다.

<주를 실체로 맞는 것>이 ‘얼마나 중하고 귀한 일’인지,
하늘이 높은 것같이 차원 높이 깨닫고 예비하고 맞아야 됩니다.

<예비하지 않고 주를 맞은 자들>은
불쌍하고 불행한 자들이 되었습니다.

- ◆ 주가 말씀합니다.

“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,
아직도 기다리기만 하고 있느냐.

기다리기만 하지 말고, 예비하고 자기를 만들어라.

너희에게 <생명의 말씀>을 주리니, <말씀>이 곧 ‘생명’ 이니라.

<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 자>는 ‘생명권’에서 무너지느니라.

<생명의 말씀>을 듣고, 깨닫고, 분별하고, 즉시 행하여라.
<명철한 지혜>이니라.

항상 가르쳐라. 그리고 항상 배워라.

그리고 행하여라. 그리고 얻고, 쓰고, 누려라.

<주와 같이 하는 자>는 ‘주’와 같이 먹고 즐기리라.”

* 잠시 쉰다.

- ◆ 그리고 주가 또 말씀합니다.

“<부활의 몸>은 ‘육’ 과 ‘신령한 영’ 이니라.

<산 자의 기쁨>이 너무나 크니라. 지금이 그때니라.

<형통한 날의 사람>은 기뻐하고,

<곤고한 날의 사람>은 생각하여라. - 때가 급하니라.

주가 ‘일어나 빛을 받할 때’ 니라.

<영광의 빛의 때>니라.

너희도 주와 같이 일어나 빛을 받아라!”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<지혜가 없는 자>는

<주의 마음>을 거스르고 <주의 전>에 해가 되게 합니다.

이는 곧 주를 믿고 살았다 하나,

주를 귀히 여기지 않았던 연고입니다.

- ◆ 사람은 ‘일의 낙’ 을 누리며 삽니다.

<일>이 곧 ‘낙’ 입니다.

<사명>이 곧 ‘자기 면류관’ 입니다.

그러나 그냥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.

매일 배워야 알고, 알아야 기뻐하며 실천하게 됩니다.

<하나님의 자연의 전>을 보니, 주의 수종(隨從)들이 일은 하지만
주와 하지 않으니 오히려 해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.

정말 깨닫고,

<주>가 ‘머리’임을 절대 깨닫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.

- ◆ 주가 말씀합니다.

“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,

주께 배우고 주와 하여라. 주가 너희의 머리이니라.”

- ◆ **잊으면 죽는다.** - 이 말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있지요?

<일>이 ‘낙’인데,

왜 <일>이 ‘낙’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‘해’가 될까요?

(잠시 쉬었다가)

<전에 주께서 말한 것>을 잊었기 때문에

알 수가 없어서 행하지 못하고,

그로 인해 <현재의 일>이 막혀 버린 것입니다.

- ◆ **“주의 말씀을 잊으면 죽는다.”** - 이 말을 생각하기 바랍니다.

<주가 한 말씀>을 잊으니

<자기 삶>도 잃고, <언을 것>도 잃고, <이상세계>까지 잃게 됩니다.

- ◆ 주가 말씀합니다.

“주께 온전함을 배워라. 확실하게 배워라.

<확실히 아는 자>가 ‘신’이 되느니라.”

- ◆ <부활되어 산 자>는 매일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변화되어

<더 좋은 차원>에 살게 됩니다.

그러나 ‘차원을 높이지 않은 자’ 는 알 수가 없습니다.

이제 부활되어 살았으니,

<자기 먼저!> 행하여 차원을 높이고

생명들도 가르치고 변화시켜 주기 바랍니다.

<온전한 것>이 아니면 무너지거나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되어,
결국에는 ‘부활되지 못한 자들’ 과 같은 처지가 됩니다.

◆ 주가 말씀합니다.

“초와 분을 다투며 뛰고 달려라.

주가 마음 졸이게 하지 말아라.

주가 걱정하지 않게 하여라.

무엇이 주의 마음을 졸이게 하겠느냐.

주께 배우지 않고 주와 함께 하지 않으니

그 일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게 되고,

결국 ‘주의 뜻’ 을 거스르게 되었느니라.

주 앞에 온전히 행하여라!

그리하면 주도 같이 일체 되어 행하느니라.

어디에서든지 주를 찾고 일체 되어 행하여라.

<네가 있는 곳>이 ‘네 육신을 중심한 주의 전’ 이니라.

저마다 <자기 위치>에서 ‘주의 말’ 을 듣고 행하여라!

<자기 위치>가 ‘일하는 처소’ 니라.”

* 잠시 쉰다.

◆ 세상에서는

“여자를 조심해라. 남자를 조심해라.

유혹을 조심해라. 불법을 행하지 않게 조심해라.

말조심해라. 차 조심해라.” 합니다.

그러나 주는 한마디로 말씀합니다.

“항상 스스로 조심해라!”

항상 자기 스스로 조심하면, 문제가 없습니다!

주가 함께 하니, 스스로 조심하며 문제없이 행하기 바랍니다.

◆ <부활의 때>에는 정말 하나 돼야 합니다.

- <성삼위>와 사랑으로 하나 되고,

- <주>와 마음도 행실도 하나 되고,

- <형제들>과 의논하고 하나 되어 화평으로 행하며
서로 마음 상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.

◆ <교회>도 차원 높게 부활되어 ‘성전 축복’을 받았으면,
그 어느 때보다 ‘살아 있는 부활의 삶’을 살면서
성삼위와 주와 형제들과 더욱 사랑과 화평으로 하나 되어
영광으로 행해야 됩니다. 믿습니까?

◆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

<한 가지>만 생각하고 행하지 말고,

그 일로 인해 ‘다른 문제’가 일어나지 않는지 봐야 됩니다.

<행하는 그 일>로 인해 ‘다른 일’ 까지 좋게 돼야만,

제대로 행하게 됩니다.

- ◆ <한 가지 일>만 생각하고 행하면
<다른 것>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.

고로 <자기 생각>만 하지 말고, <행하는 목적>만 생각하지 말고,
그 일을 행함으로 <문제>가 생기지 않는지 보면서
온전하게 해야 됩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을 보면,
『나는 알파와 오메가요, 처음과 나중이요, 시작과 끝이라.』 했습니다.

또 요한계시록 2장 23절을 보면,
『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.』 했고,

요한계시록 18장 6절을 보면,
『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 주리라.』 했습니다.

- ◆ <하나님>은 ‘알파와 오메가’요, ‘시작과 끝’으로서
전에도 그리하셨지만, 지금도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.

- ◆ 로마서 2장 9-10절을 보면,
『<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>에는 ‘환난과 곤고’가 있으리니
첫째는 ‘유대인’에게요, 또한 ‘헬라인’에게며,
<선을 행하는 각 사람>에게는 ‘영광과 존귀와 평강’이 있으리니
첫째는 ‘유대인’에게요, 또한 ‘헬라인’에게라』 했습니다.

◆ 이 말씀과 같이

하나님은 <믿는 자들>도 ‘행위’ 대로 갚아 주시고,
<안 믿는 자들>도 ‘행위’ 대로 갚아 주십니다.

모두 ‘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살았던 연고’이며,
혹은 ‘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살았던 연고’ 입니다.

◆ 지금 이 시대 현실에서도

<하늘 신부들>에게도 ‘행위대로 갚아 주는 심판’ 이 진행 중이고,
<세상>에도 ‘행위대로 갚아 주는 심판’ 이 진행 중입니다.

◆ <현재 세상에 일어나는 심판>이 한 가지 있는데,
그 심판은 왜 일어나게 됐는지 압니까?

주가 말씀합니다.

“<오리라 한 의인>을 미워하고

<이 시대의 죄와 고통을 대신한 자>를 붙잡아서

<그가 당하는 고통을 즐거워한 연고>이니라.

그를 대한 대로 ‘갑절로 갚아 줌’ 을 받게 되었느니라.

<자기 위치>를 떠나 ‘권위를 업신여긴 연고’ 니라.

하나님은 ‘세상 법’ 을 통해 심판하시나니,

그 심판이 맹렬하시니라.

<주>는 ‘시대 죄’ 를 대속하러 들어갔으나,

<그들>은 ‘자신의 죄값’ 을 치르러 들어갔도다.

<지난날 자신의 행위>가 ‘자신의 현실’ 을 만들었느니라.

사람이 ‘자기 행위의 열매’ 를 먹느니라.” (아멘.)

* 잠시 쉰다.

◎ 이제 주가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.

◆ “사랑하는 자들아.

주 안에서 흠 없이 행하여, 매일 행하시는 심판을 면하여라.

들어가도 복, 나가도 복을 받는 너희가 되기를 축원한다.”

◎ 말씀 마쳤습니다.